

2016 년 6 월 5 일(주일) 야고보서(22-마지막) “어떻게 기도할까요?”(약 5:13-20)

<도입>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교제와 소통입니다. 일방적 소원 간구 뿐 아니라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하시고 있음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1] 고난 중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지난 주 설교에 이어)

(1) 당하는 이 시련이 모두 내 유업으로 승화되게 해달라고 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전 2:9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 함과 같습니다”(새번역)

<구체적 이해를 위해 브래넌 매닝의 경험담 소개>

저서 ‘신뢰’ - 자신의 불우했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신이 회복되었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강박적 불안, 못났다는 생각, 열등감이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입맞추거나, 껴안아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귀찮은 존재, 골칫거리’로 통했고, 늘 입다물고 있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3 살 때 고아가 되어 보육원에서 유년기에 애정과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자식에게도) 애정과 관심을 주실 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어린 브래넌은 친구들이 자기 부모와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과 함께 **나한테 뭔가 결함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나는 애정을 받지 못한다고 믿었고, 자기를 탓하는 사이에 집요하고 교묘한 자기 혐오의 씨앗이 그의 삶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님이 날 버려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고 그와 동반되는 감정은 두려움, 분노, 포기였습니다.

성인이 되어 맞이한 어느 날 기도 중에 보육원에 있던 여섯 살 나이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창틀에 무릎 꿇고 앉아 유리창에 코를 대고 자신을 입양해 줄 좋은 양부모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 상황과 모습이 그를 강타했습니다.

그 때, 브래넌은 일생 그 안에 부글부글 끓던 모든 분노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주지 않은 데 대한 모든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도자 브래넌은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는 실수했지만 너는 이렇게 잘 되었구나’ 브래넌은 ‘어머니가 자신을 끌어안고 입맞추는 동안, 내 평생 신뢰의 가장 큰 적이 무력해졌다’ 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릴 적 상처의 치유와 함께 도무지 자신의 인생에 펼쳐질 것 같지 않았던 **신뢰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브래넌이 얻은 유업의 축복입니다. 자신의 과거가 어른이 되어서도 망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적 문제들이 아프고 삶을 무기력하게 하더라도 직시하고, 그 문제를 위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내 인생에서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내 마음에 생각난 적도 없는 세계가 현실적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2) 끝까지 견디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2 주 전에 인내에 대한 말씀 참고.

시련을 지나갈 때,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축복을 눈 앞에 두고도 받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3) 시련을 통해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해주십사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드러야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련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해달라고 말하는 뜻은 시련 그 자체가 혹독하고 우리 삶을 죽게 만들어 버려서 기도하기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브래넨 매닝은 어릴 때 상처 때문에 분노와 좌절과 불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알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사실 지극히 정상적이고 분명히 알아야 했을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어떤 문제가 심각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박 중독, 심각한 인격 장애, 알코올 문제, 등... 그분들은 자기 처지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잘못해서 부모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분들도 자기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이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안다면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breakthrough 가 일어납니다. 획기적인 약진이 약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남은 기간을 더욱 너끈히 이겨 나갈 수 있고, 더 큰 영적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고난은 (지난 주에 말씀 드린 것처럼) 끝이 있습니다. 고난의 목적은 연단하여 아름다운 인격체로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잠 17:3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와 마음(인격)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측면에서 고난을 이해할 때, 새로운 인격체로 변화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꼭 필요한 훈련이 됩니다. 고난이 어느 날 끝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발견되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더불어 말씀 묵상도 기도의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2] 19, 20 절 - 야고보서를 마치며...

19-20 절 ‘미혹되어 진리의 길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 야고보는 공동체의 일부 성도들이 차별과 탐욕의 길로 빠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에서 떠나고 있는 것을 지극히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어떤 누구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도 그대로 내버려두고 포기하지 말자고 합니다. 20 절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는 마무리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 즉 이미 믿고 들어온 사람들이 마치 안 믿는 사람들과 방불한 사고 방식과 세속적 삶(사망으로 표현)으로 빠져버린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죄, 즉 연약함과 미성숙과 실수 그리고 세속적 삶과 자기 중심적 신앙, 즉,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인내와 기도입니다. 이미 2:8 에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강조했었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역사를 위해서 인내와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야고보서의 말씀 위에 신앙 생활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관건은 어떻게 그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기도와 묵상, 예배와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부딪히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소중한 도구들을 많이 사용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과 교회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고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위에서 말한 3 가지를 당신의 기도 속에서 드리고 있습니까?
2. 기도를 통하여 내 간구 이상의 축복을 얻은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3. 나는 기도를 통하여 내가 잘못 알고 오해했던 것을 풀어본 적이 있습니까?
4.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가장 인상에 남는 말씀 구절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